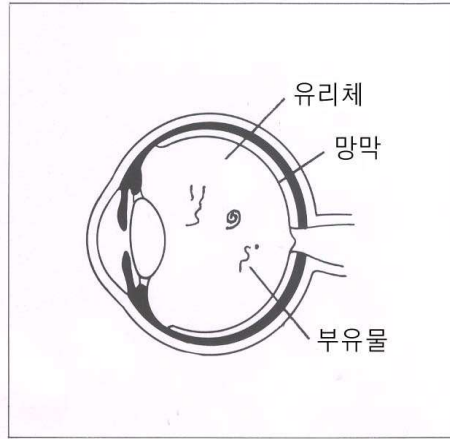


날파리증(비문증)



눈앞에서 작은 물체가 떠다니는 현상을 비문증이라고하며 일명 날파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눈 속 유리체라는 부위에 부유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숫자도 여러 개일 수 있으며 각가지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날파리나 하루살이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반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 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는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시선의 중심에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옆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비문증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욱 잘생깁니다. 특히 근시가 있는 사람, 백내장 수술 후, 눈 속에 출혈이나 염증을 앓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문증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눈 속의 유리체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비문증상 즉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며,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은 점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레이저 치료법은 떠다니는 물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의 크기를 작은 조각으로 분산시키고 위치를 시선 밖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시도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후 후유리체박리에 의한 비문증상의 경우에는 수술적 제거방법을 실시하기 전에 레이저 치료법을 먼저 시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보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 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문증상이 있는 사람은 그 물체에 대해 자꾸 신경을 집중시키는 습관이 생기는데, 신경을 집중시키고 걱정을 하면 할수록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손해 일 뿐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그 물체를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별로 문제가 없지만, 숫자가 갑자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다든지, 크기가 커진다면 심각한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망막이 박리되는

질환으로서 떠다니는 물체의 숫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눈 속에서 번개불처럼 번쩍이는 현상을 느끼게 됩니다. 더 진행이 되면 개기일식 때 처럼 시야의 한 부분이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눈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는 증상은 편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나며 나이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증상만 갖고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개불 증상과 동시에 반드시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눈앞에 떠다니는 물체와 번쩍이는 증상이 있더라도 여러 달 동안 큰 변화만 없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 증상이 일정 기간 동안에 더욱 심해진다면 즉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비문증상이 최근에 발생하였거나 최근에 더 심해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눈에 충격이 갈 수 있는 상황을 피하셔야만 합니다. 눈을 비비는

행위나, 달리기, 자전거 타기, 땀뿜기, 줄넘기,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철봉 매달리기, 등산, 무거운 물건 들올리기 등은 병세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비문증상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정상태가 유지된다면, 안과의사가 확인한 후 운동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